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16.(목) 11:00 < 11.17.(금) 조간 > 배포 2023. 11. 16.(목)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업계 역량을 결집한다

-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된 풍력산업 혁신토론회(포럼) 발족
-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간 소통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 16.(목) 오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풍력산업 혁신토론회(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분과별 첫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내 풍력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참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산업협회,, 두산에너빌리티 등

민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이번 「풍력산업 혁신토론회(포럼)」는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제도, ▲주민 수용성, ▲산업육성, ▲산업기반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풍력산업 전반의 핵심 현안들을 찾아낸 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국내 풍력발전 설비는 '22년 말 1.9GW이며, '30년 19.3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 풍력 시장도 '22년 말 906GW에서 '30년 1,588GW까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세계 각국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보급 초기 단계로, 시장의 확대와 함께 강건한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토론회(포럼)가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논의된 방안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보급과	책임자	과 장	강규형 (044-203-5380)
		담당자	사무관	조현진 (044-203-538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풍력산업 혁신포럼 발족식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23. 11. 16(목) 15:00~16:30

○ **(장소)** 서울 코리아나 호텔 글로리아홀(7층)

○ **(주최/주관)** **주최**산업부 / **주관**한국에너지공단

○ **(참석자)** 산업부, 에공단, 유관기관[1], 발전·기자재社[2] 등 200명 내

1) 에공단, 한전, 에경연, 에기평, 발전공기업, 신재생에너지협회, 풍력산업협회 등
2) SK 에코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CS윈드, SK 오션플랜트, 현대스틸산업 등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 행사 안내	사회자
15:05~15:10	5′	• 개회사	산업부
15:10~15:15	5′	• 축사	전기위원장
15:15~15:35	20′	• 풍력산업 혁신포럼 운영계획	한국에너지공단
15:35~15:50	15′	• 기념촬영 및 정리	
15:50~16:30	40′	• 각 분과 킥오프 미팅	분과별 진행

□ 분과별 주요 내용(안)

○ 풍력산업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분과별 핵심 주제에 대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 8개월간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

- **(정책·제도)**계획입지제도, 입찰제도, 입지컨설팅 등 **주요제도 개선방안**
- **(주민수용성)**주요 인·허가 세부기준 마련 등 **주민수용성 확보 체계 마련**
- **(산업육성)**국산 기자재 활성화, R&D 발굴 등 **국내 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 **(산업기반)**배후항만, 계통접속 대안 등 **선제적인 산업 기반 구축방안**